

## 성도·목회자 70% 이상, ‘교회 사역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 찬성!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 활동 참여 감소와 사역 동력 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6(심플처치)에 따르면 성도 4명 중 1명 이상은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 내 체류 시간이 줄었으며, 전반적인 신앙 활동 참여도 역시 과거에 비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특히 성도 절반 가까이가 현재 교회의 행사가 너무 많다고 느끼며, 모임 참석 권유 자체를 심리적 부담(49%)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사역의 중심축 이동’과 ‘핵심 사역에 대한 집중 요구’이다. 주일 오후 예배나 새벽 기도회 같은 전통적인 집회 참여는 줄어든 반면, 소그룹이나 신앙 교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성도들이 이제 관성적인 활동보다는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과 ‘깊이 있는 관계’를 선택적으로 갈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목회자의 86%, 성도의 72%가 교회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핵심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결과는 ‘더 본질적인 사역’으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번 <넘버즈 335호>에서는 ‘심플 처치(Simple Church)’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사역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오직 복음의 본질과 성도의 삶에 집중하는 새로운 목회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심플처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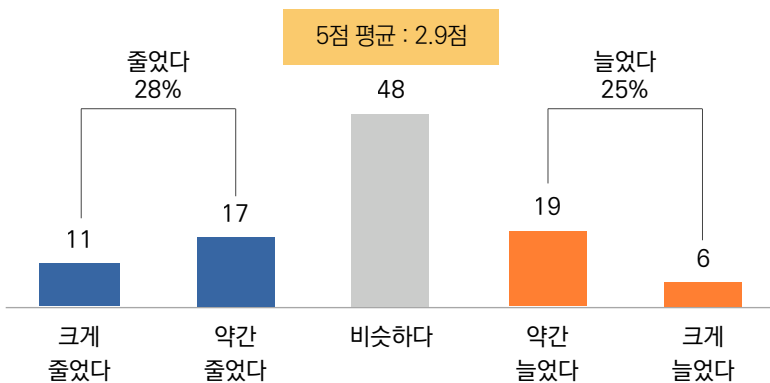
### 조사개요

구분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교회출석자)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표본)	총 5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한 URL 발송)	모바일 조사 (문자를 통해 URL 발송)
표본 추출	-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 현황조사(목회 데이터연구소)에 근거하여 모집단 비율을 추출	-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 교회 규모별 가중치 적용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5월 15일 ~ 22일 (총 8일간)	2025년 5월 23일 ~ 28일 (총 6일간)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희망친구 기아대책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성도 4명 중 1명 이상,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 체류 시간 '줄었다'!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현재 교회 내 체류 시간 변화를 성도들에게 물은 결과, 성도의 절반 가까이(48%)는 '비슷하다'고 응답했고, '늘었다'(25%)보다 '줄었다'(28%)는 응답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성도 4명 중 1명 이상은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셈이다.
- 또한, 5점 평균 기준 2.9점이었는데 이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교회 체류 시간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정체 혹은 감소 국면에 머물러 있음이 지표로 확인된 것이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체류 시간 변화 (성도,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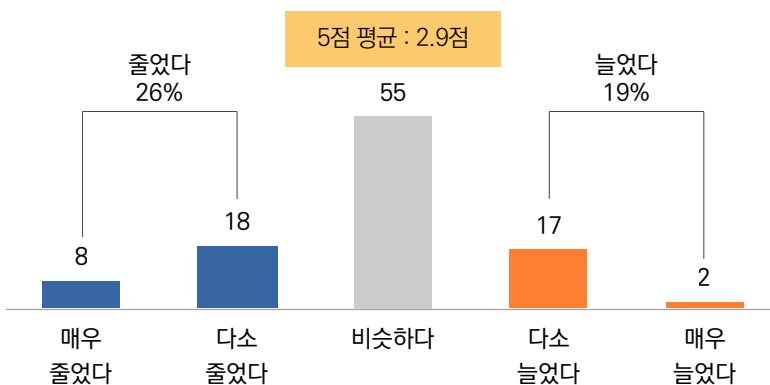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성도,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활동 '줄었다'!

-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활동/사역 참여 빈도의 변화를 물은 결과, '비슷하다'가 55%로 절반을 넘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늘었다'(19%)보다 '줄었다'(26%)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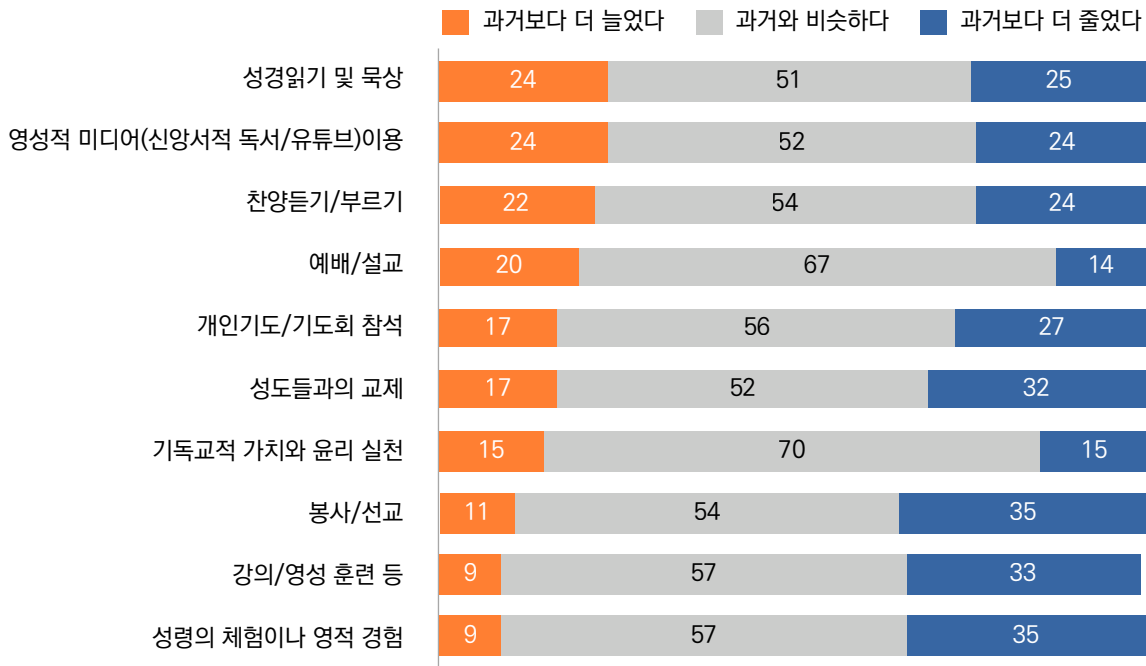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활동/사역 참여 빈도 변화 (성도, N=1000, %)



## 예배 외 모든 신앙 활동, 과거 대비 '감소' 흐름 뚜렷!

- 과거와 비교한 성도들의 현재 신앙생활 변화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과거보다 더 늘었다'는 응답이 '더 줄었다'보다 앞선 항목은 '예배/설교'가 유일했다. 그 외 대부분 영역에서는 감소세가 뚜렷했는데, '봉사/선교'(35%), '강의/영성 훈련'(33%) 등은 '더 줄었다'는 응답이 '더 늘었다'는 응답의 2배 이상이었다. 성도들의 교회/신앙생활 참여가 전반적으로 정체와 감소 흐름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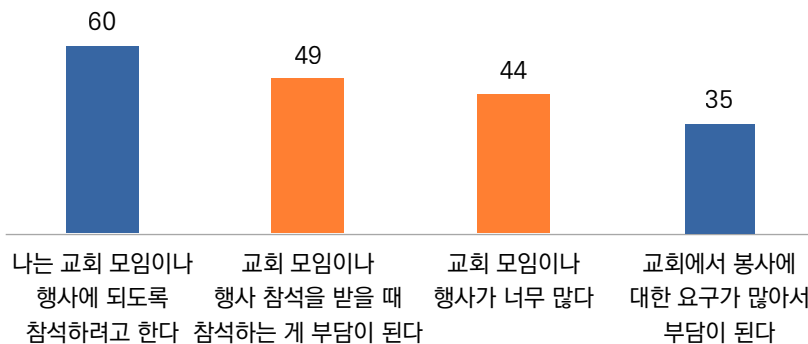
[그림] 과거와 비교한 현재 교회/신앙생활 변화 (성도, N=1000, %)



## 성도 절반 가까이, '교회 행사 너무 많고, 참석 권유 부담된다'

- 교회의 예배/활동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동의율), 성도의 60%는 '나는 교회 모임이나 행사에 되도록 참석하려고 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모임이나 행사 참석 권유받을 때 참석하는 게 부담스럽고'(49%), '교회 모임이나 행사가 너무 많다'(44%)는 속내를 내비쳤다. 성도 절반 가까이는 '교회 모임/행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그림] 예배/활동에 대한 인식 ('매우+다소 그렇다' 비율\*, 성도,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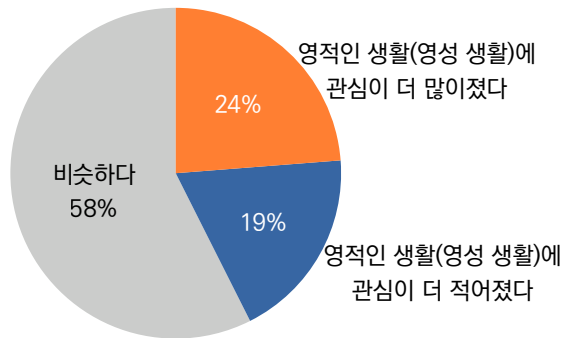


\*4점 척도

## 성도, 교회 활동은 줄었지만 영성 생활 관심도는 증가!

- 지난 2~3년과 비교해 영성 생활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성도들에게 물은 결과, '영성 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24%)가 '관심이 더 적어졌다'(19%)보다 높게 나타났다.
- 교활동은 감소하고 있으나, 정작 개인의 신앙 영성은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영성 생활에 대한 관심 변화 (성도,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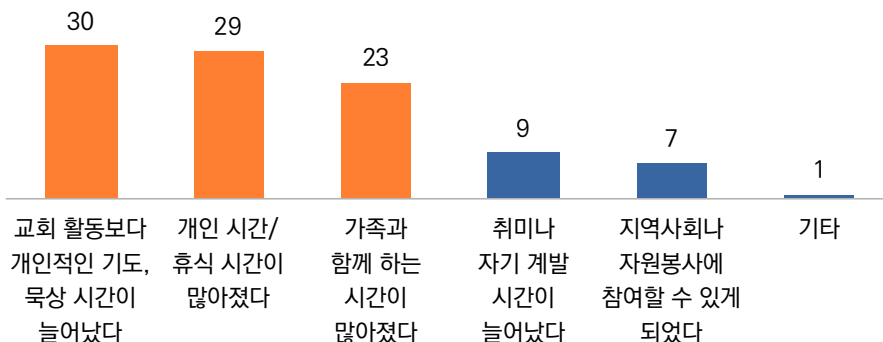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교회 활동 감소의 긍정 측면, '개인기도와 묵상시간 늘어났다'!

- 코로나 이전보다 사역의 빈도가 줄어든 성도 중 '사역 참여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개인적 기도,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30%), '휴식 시간이 많아졌다'(29%),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23%)를 높게 꼽았다.
- 교회 활동 참여의 공백을 단순히 휴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적 수련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그동안 교회 중심적인 공동체 중심의 신앙 생활이었다면 개인주의 성향이 교회에 점점 들어오면서 영성의 개인화 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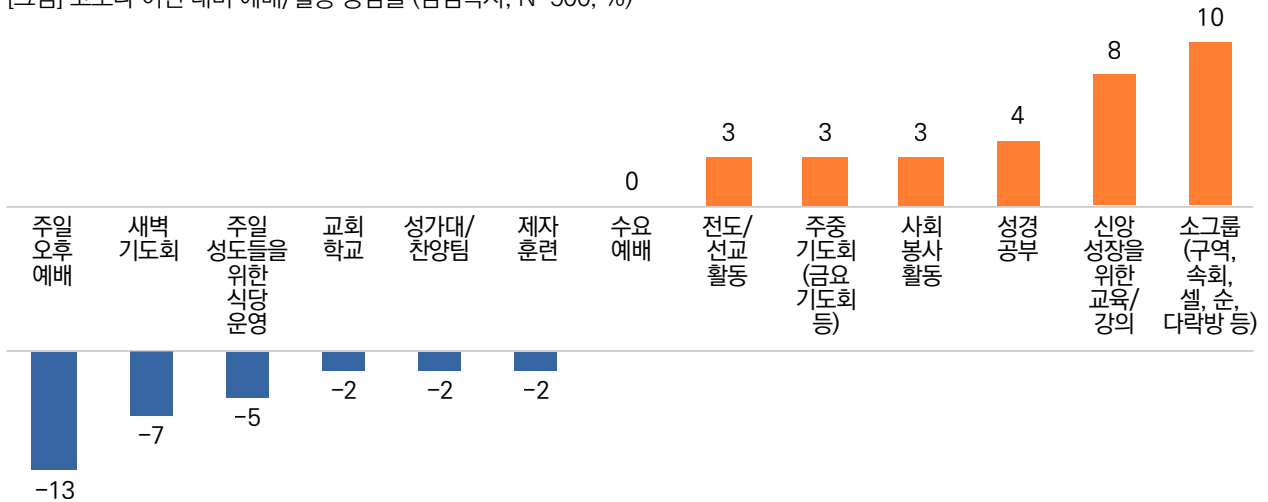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활동/사역 빈도 감소의 긍정적 측면 (활동/사역 빈도 감소 응답자 중 긍정 평가 성도, N=64, %)



### 코로나 이후 주일오후예배 없앤 교회 13%, 새벽기도 없앤 교회 7%!

-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교회 예배/활동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주일오후예배'(-13%)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새벽기도회'(-7%), '주일 식당 운영'(-5%)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소그룹'(10%), '신앙성장을 위한 교육'(8%), '성경공부'(4%)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들이 여러 복잡한 사역을 단순화시켜 개인의 영성회복과 관계형성을 위한 본질적 사역, 즉 소그룹이나 성경공부 등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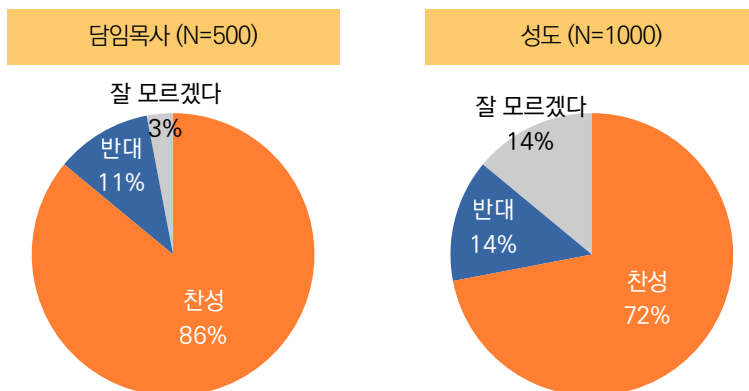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예배/활동 증감률 (담임목사, N=500, %)



### 성도·목회자 70% 이상, '교회 사역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 찬성!

- 교회 행사/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담임목사의 86%, 성도의 72%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두 그룹의 70% 이상이 현재 사역 방식의 변화(선택과 집중)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교회 행사/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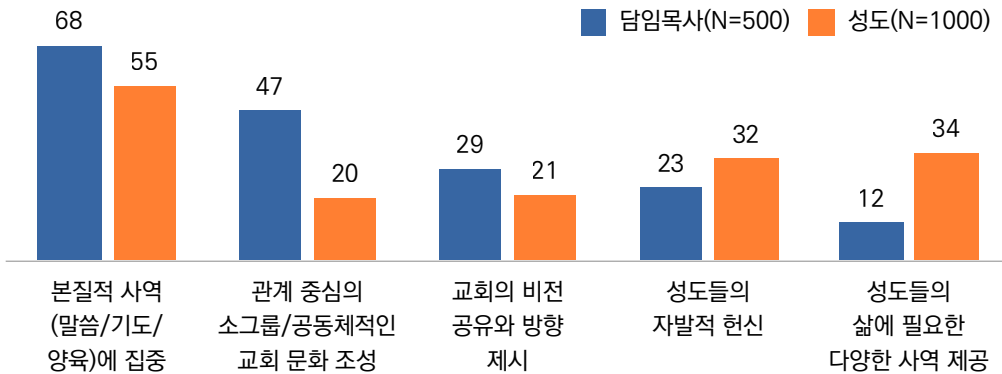


\*4점 척도

## 선택과 집중의 지향점 → '본질적 사역'!

- 담임목사와 성도가 기대하는 사역의 지향점은 무엇일까? 담임목사(68%)와 성도(55%) 모두 '본질적 사역에 집중' 하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목회자는 '관계 중심의 소그룹과 공동체적인 교회 문화 조성'(47%)을, 성도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사역 제공'(34%)을 각각 2위로 선택했다.
- 담임목사는 예배와 공동체를, 성도는 예배와 삶의 필요를 1~2위로 꼽았는데 이는 '성도의 삶'이라는 목적지는 같으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목회자는 공동체라는 '틀'을 통해, 성도는 구체적인 '콘텐츠/프로그램'을 통해 신앙이 삶의 현장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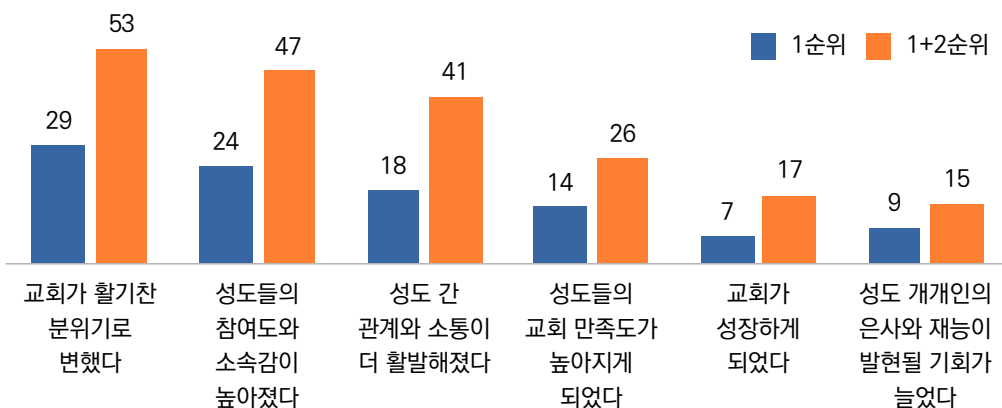
[그림] 지향하는 사역 방향(담임목사) vs 교회 사역에 바라는 점(성도) (1+2순위, 상위 5개, %)



## 본질적 사역 집중하면, 성도 사역 참여 증가 → 활기찬 교회 분위기!

-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역 빈도가 증가한 교회 담임목사의 긍정 평가 이유(1+2순위)로는 '교회가 활기찬 분위기로 변했다'(53%)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성도들의 참여도와 소속감 증가'(47%), '성도 간 관계 및 소통 활발'(41%) 등의 순이었다.
- 이는 교회가 본질적 사역에 집중했을 때, 성도 증가와 사역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고, '활기찬 교회 분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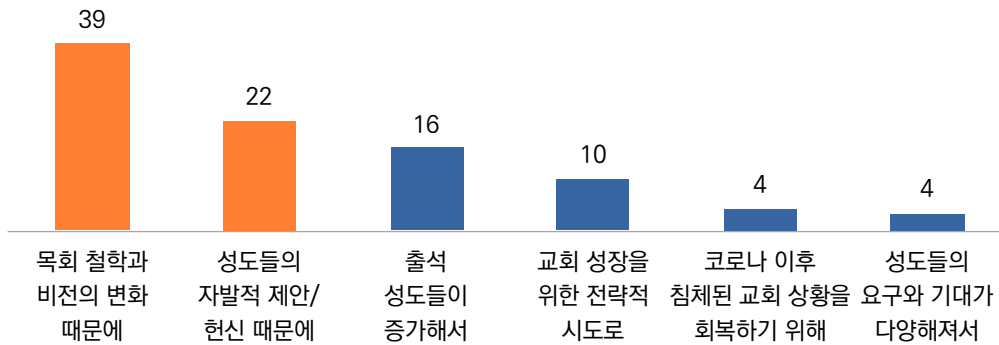
[그림] 활동/사역 빈도 증가에 대한 긍정적 측면 (코로나 이후 교회 활동/사역 증가, 긍정적 평가 목회자, N=112, %)



## 사역 증가의 핵심 동력,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비전의 변화’!

- 교회 활동/사역이 증가한 이유로 담임목사들은 ‘목회 철학과 비전의 변화’(39%)를 1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성도들의 자발적 제안/헌신 때문에’ 22%, ‘출석 성도들이 증가해서’ 16% 등의 순이었다.
- 특히 1,2위 응답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담임목사의 분명한 목회 비전이 성도들에게 공유되고 공감을 얻을 때,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라는 실질적인 사역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사역의 변화와 역동성은 목회자의 명확한 비전 설정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활동/사역 증가한 이유 (코로나 이후 교회 활동/사역 증가한 담임목사, 상위 6개, N=121, %)



## 이번호 요약

### 1. 성도,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활동 '줄었다'!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활동 참여 빈도 변화를 묻은 결과, 전체적인 흐름은 '늘었다'(19%)보다 '줄었다'(26%)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 2. 교회 활동 감소의 긍정 측면, '개인기도와 묵상시간 늘어났다'!

코로나 이전보다 사역 빈도가 줄어든 성도 중 '사역 참여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개인적 기도,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30%)를 가장 높게 꼽았다.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영성의 개인화 시대가 열렸음을 시사한다.

### 3. 성도·목회자 70% 이상, '교회 사역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 찬성!

교회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담임목사의 86%, 성도의 72%가 찬성해, 두 그룹의 70% 이상이 현재 사역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심플처치의 목회적 적용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KCMC, 박영호 목사)

## 관련 성경 구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 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41~42)

##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는 관성적인 프로그램과 과도한 행사에 짓눌려 사역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의 민낯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성도 절반 가까이(44%)가 교회 행사가 너무 많다고 느끼며, 모임 참석 권유 자체를 심리적 부담(49%)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은 성장시대의 방대한 사역이 지금은 성도들을 영적 피로감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역 빈도가 줄어든 성도들이 오히려 개인적 기도와 묵상 시간 증가(30%)를 긍정적 이유로 꼽은 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의 86%, 성도의 72%가 사역을 줄이고 핵심 사역에 집중하는 방향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소위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다. 코로나 이후 주일 오후예배를 없앤 교회가 13%로 8곳 중 1곳 꼴이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하는게 아니라 대체로 소그룹 또는 성경공부를 한다. 그럼 그렇게 주일 오후에 보이지 않던 젊은 교인들이 교회에 하나 둘 나오게 된다. 심플처치의 위력이다. 사역의 단순화, 집중화로 인해 교회는 활력을 얻는다. 그래서 심플처치는 교회에 활력을 준다.

한편, '심플처치'로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궁극적인 동력은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의 변화'로 귀결된다. 교회는 수많은 사역의 뜻을 사방으로 펼쳐 제자리에서 흔들리는 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의 분명한 비전 아래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노를 젓는 배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에너지를 본질(말씀/기도/양육/소그룹)에 집중시킬 때, 교회는 자원의 분산을 최소화하고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최대의 동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